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 June 03

• 사도행전 2:42-47

교회는 모이는 일과 흩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힘써 모여 예배하며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 자리에 있던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행 1:15). 당시 성도들의 환경과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눈에 보이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졌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는 자들을 펍박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의지할 것은 주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협과 두려움 아래에서도 120명은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고, 그곳에 있던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잘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위대함과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위기’라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자들을 통해 복음이 이곳저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행 11:19-21).

나는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까?

- ① 나를 혼들리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 ② 혼들림 없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